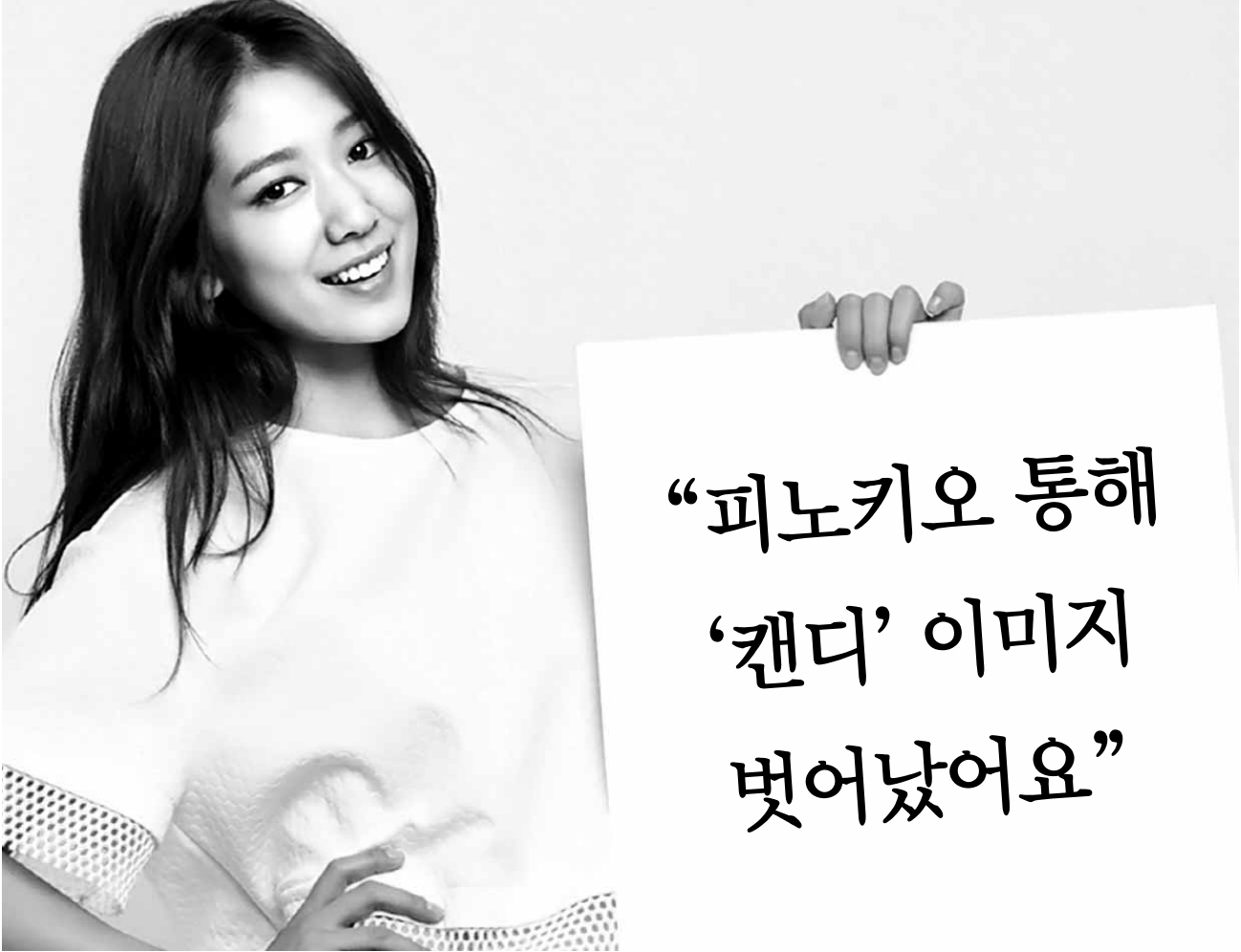


TV 26일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⑥	40 쿠폰닝A	00 KBS 뉴스광장	00 2TV아침 1~2부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10 광주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폭풍의 여자>	30 KBC 모닝와이드
⑧	00 아침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부 40 지구촌 뉴스	30 생방송 오늘아침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황홀한 이웃>
⑨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일편단심 만들레>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⑩	20 시사 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튜튼생활제초	40 안녕하세요 스페셜(재)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⑪	30 독한인생 서민갑부	00 KBS 네트워크 특선 경남100경 완정정보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55 월화 드라마 <힐러>(재)	00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10 KBC 생활뉴스 30 세계문화탐방 지구촌 축제
⑫	4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55 바른말 고요말		10 MBC 정오 뉴스 20 시사매거진 2580	00 SBS12뉴스 45 닥터 365 55 씨네 포트(재)
①	40 김부장의 뉴스통	00 대조영(재) 55 TV동화 빨간자전거(재)		10 꾸러기 식사교실 40 독독 키즈스쿨 스페셜	55 날씨와 생활
2	50 직언직설	00 TV 아고라(재) 50 콘서트 필(재)	00 KBS 뉴스타임 10 인간극장 스페셜(재) 50 엄마의 탄생(재)	30 어린이 직업탐험대 드림키즈 스페셜	0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3		30 영상앨범 산(재)	45 후토스 잃어버린 숲	00 MBC 뉴스 10 내 사랑 동 40 문화四色	00 SBS 뉴스 10 겨울방학 특선 특집다큐 대한학교를 돌아보다
4	00 정용관의 시사병법	00 KBS 뉴스4 10 희망창조 코리아 기술금융 미래를 키운다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40 TV유치원 공다공	25 MBC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야>	00 꿈의 라이브 프리즘 스톤 30 내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5	00 하종대의 쾌도난마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 그래피	10 외계가족 출리풀리 40 2015 아시아컵 축구 4강전 <대한민국：이라크>	00 MBC에브닝 뉴스 40 MBC스포츠 2015 AFC 아시안컵 준결승 <대한민국：이라크>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0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365 10 KBC생방송 투데이
7	20 TV 주치의 닥터 지 바고	00 KBS 뉴스7 30 인순이의 토크드라마 <대개꽃>			10 시사타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달려라 장미>
8	20 내조의 여왕(재)	25 일일연속극 <당신만이 내 사랑>	00 일일드라마 <달콤한 비밀> 40 결혼이야기	00 MBC 뉴스데스크 55 MBC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야>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05 위기탈출 넘버원	30 리얼스토리 논	
⑩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가요무리	10 월화 드라마 <힐러>	00 월화 특별기획 <빛나거나 미치거나>	00 월화드라마 <편지>
⑪	00 이제 만나러 갑니다	00 KBS 뉴스라인 40 TV, 책을 보다	2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특집 다큐멘터리 <젊은 거장, 베를린의 신데렐라화가 SEO>	15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⑫	30 모큐드라마(싸인)(재) ①:40 독한인생 서민갑부(재)	20 T 타임 50 일약특목 ①:10 다크공감(재)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특파원 현장보고(재)	15 MBC 뉴스24 45 실맛 나는 세상 스페셜 ①:45 TV 예술무대	35 나이트 라인 ①:05 테마 스페셜 베스트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 <부모광장>	14:45 코코몽2	19:00 지파이티스
05:40 나의 성공비결	10:10 EBS 특강	15:00 신나는 오정 학교	19:30 EBS 뉴스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0:40 최고의 요리비결	15:15 지구를 지켜라	19:50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용서>
07:00 코코몽2(재)	11:1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30 울리바버	20:40 다크 오늘
07:15 놀이터 구조대 뽀잉(재)	11:20 세계테마기행 <베트남 손수를 만나다>(재)	15:45 피터 래빗	20:50 세계테마기행 <황금의 나라, 미얀마>
07:30 풍선 코끼리 발루뽀(재)	12:00 EBS 정오 뉴스	16:00 당동영 유치원(재)	21:30 한국기행 <겨울 제주>
07:45 꼬마씨네 타요(재)	12:10 EBS 스페이스 공감1(재)	16:20 놀이터 구조대, 뽀잉	21:50 EBS 다크프러임
08:00 당동영 유치원	13:05 지식채널e	16:35 오스카의 오아시스	22:45 달려졌어요
08:20 두다다콩(재)	13:10 초등 1년 겨울방학생활	16:45 골디와 친구들(재)	23:35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 <우간다 트레코리트레일 열대우림>
08:35 방귀대장 뽕뽕이	13:30 초등 3년 겨울방학생활	17:00 방귀대장 뽕뽕이(재)	24:05 지식채널e
08:50 골디와 친구들	13:50 초등 5년 겨울방학생활	17:15 풍선 코끼리 발루뽀	24:10 EBS 인문학 특강
09:05 원더 볼즈(재)	14:10 스포트웨어야 놀자	17:30 꼬마버스 타요	
09:20 출동 슈퍼원스(재)	14:30 부릉! 부릉! 브루미즈	17:45 두다다콩	
09:35 아기고릴라 동동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EBS플러스1		EBS플러스 2	
00:00 2016 수능열기 <유중현, 윤선영의 국어>	12:10 2016 수능개념 <윤연주의 영어>	07:00 2015 공민중개사 시험대비강좌	16:00 초등 5년 겨울방학생활
05:40 " <오광석의 수학 I>	13:05 " <윤정환의 영어>	07:3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6:20 K팝으로 배우는 다문화 한국어
01:40 " <오랜지의 영어>	14:50 " <주혜연의 영어>	08:30 검정고시대비 강좌	16:50 학교교육 드라마 <어린이 손자병법>
02:30 수능길잡이 <문학>	15:40 2016 수능열기 <오랜지의 영어>	09:00 출거운 수학 EBS MATH	17:20 백점공략 중학수학 <국어①②>
03:20 " <수학 I>	16:30 " <유중현, 윤선영의 국어>	09:10 TV 중학 <수학 1상>	18:00 TV 중학 <국어⑤⑥>
04:10 " <미적분과 통계기본>	17:20 " <오광석의 수학 I>	10:30 " <역사 1>	18:40 " <수학 3상>
05:50 " <영어독해 유형>	18:10 고등예비과정 <장동진의 국어>	11:10 " <국어③④>	19:20 필독 중학 한국사
06:40 " <박근영의 미적분 I>	19:20 " <최은진의 수학 I>	11:50 " <수학 2상>	20:00 EBS 기획특강
07:30 " <차현우의 미적분 II>	20:00 " <김소연의 수학 II>	12:30 실천 취업가이드	20:50 EBS 기획시리즈
08:20 " <구명석의 확률과 통계>	20:50 " <주혜연의 영어>	13:10 중학 학습비법특강 <국어①②>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09:10 " <독서와 문법>	21:50 수능길잡이	13:50 " <국어③④>	22:00 중학 학습비법특강 <국어⑤⑥>
10:00 고등예비과정 <장동진의 국어>	" <구명석의 확률과 통계>	14:30 " <사회 1>	22:40 TV 중학 <국어⑤⑥>
10:50 " <최은진의 수학 I>	22:3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15:20 초등 1년 겨울방학생활	23:20 필독 <사회1>
11:4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23:20 2016 수능개념 <주혜연의 영어>	15:40 초등 3년 겨울방학생활	24:00 왕기초 중학 <수학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26일(음 12월 7일 壬寅)	
子	48년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한의 고통이 상당할 것이다. 60년생 상대의 반응이 시원치 않겠다. 72년생 잘 살펴보면 분명히 쓸모가 있으리라. 84년생 너무 깊이 개입한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행운의 숫자：89, 44	午	42년생 지난 날 언행 했던 바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날이니라. 54년생 일관성 있는 꾸준함이 요구되는 때이다. 66년생 흥한 것은 많고 갈한 것은 적어 보인다. 78년생 부담스러워해 왔던 짐을 덜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21, 03
丑	49년생 힘들겠지만 결실이 많고 알찰 것이다. 61년생 겉치면서 매우 분주한 하루가 되겠다. 73년생 소원 했던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양태이다. 85년생 다른 곳까지 옮겨가면서 더 확대되는 기세이다. 행운의 숫자：45, 77	未	43년생 결정적인 순간에 타지게 된다. 55년생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항만을 우선 적용해야겠다. 67년생 시련스럽게 진행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양다. 79년생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66, 11
寅	38년생 상대가 싫어한다면 굳이 행할 필요가 없다. 50년생 돈 때문에 많은 이들이 관련 될 수밖에 없다. 62년생 습관화 되지 않도록 하라. 74년생 영광을 안으리라. 86년생 대조해 보면 명명백백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07, 35	申	44년생 상대는 다 알면서도 내숭을 떨고 있느니라. 56년생 인식을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68년생 공동작이어서 더불어 처리하게 된다. 80년생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정진하라. 행운의 숫자：12, 38
卯	39년생 다른 관점에서 조망해 보자. 51년생 임시방편적인 대처는 오래가지 못 하리라. 63년생 당달아 복 받을 수도 있는 판국에 놓인다. 75년생 수용할 수밖에 없는 대세이다. 87년생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53, 29	酉	45년생 완전하게 고칠 필요가 있겠다. 57년생 그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터이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정답이니라. 69년생 의식할 필요 없다. 81년생 폭발적인 양상을 띄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80, 24
辰	40년생 대책을 강구 해야겠다. 52년생 상대적이나 만큼 처세를 잘 해야 하느니라. 64년생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황이 전개 될 것이다. 76년생 상대의 입장도 여러 가지로 고려하면서 처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17, 42	戌	46년생 진지하게 고민한 후에 방안을 모색하자. 58년생 정해 요 소만 제거한다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 70년생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말썽의 소지가 크다. 82년생 곧 알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25, 50
巳	41년생 점점 활기를 띠면서 운로가 왕성해진다. 53년생 좋은 결과 나타나게 되어 있다. 65년생 앞뒤 가리지 말고 무조건 밀어붙이면 성사된다. 77년생 과거에 소비적인 관계에 있었던 이가 생산적으로 전환된다. 행운의 숫자：62, 18	亥	47년생 너무 느슨해져 있다는 것이 바로 하자이니라. 59년생 요건은 되지만 추진 동력이 약하다. 71년생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만 하는 수고로움이 보인다. 83년생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내면은 특별하다. 행운의 숫자：58, 94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Hotline” ☎010-9790-8237			



박신혜 “관객과 호흡하는 배우 되고파”

배우 박신혜(25)는 뭔가 한결 느슨해진 느낌이었다. 박신혜는 지난 15일 종영한 SBS TV ‘피노키오’를 촬영하는 3개월 동안 열정적인 수습기자 최인하로 온전히 살았다. ‘피노키오’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만큼 아쉬움이 없다는 박신혜를 최근 서울 종로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기자 생활요? ‘MSC 뉴스 최인하였습니다’라고 말할 때 쾌감이 있더라고요. 전 (기자가 되면) 취재원에게 묻는 건 잦했을 것 같은데 취재하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상황을 판단하려면 다방면으로 봐야 하는데 제가 그렇게 넓은 눈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웃음)”

박신혜가 분한 최인하는 거짓말하면 탐국질을 하는 가상의 ‘피노키오 중후군’을 앓는다. 최인하는 거짓 없는 뉴스를 만드는 기자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 기자가 된다. 그는 기하명(이종석 분) 등 다른 수습기자들과 함께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조금씩 성장한다.

박신혜는 “기자들이 쓰는 표현이 제 평소 어휘들과는 다르니 정말 어려웠다”면서 “탐국질을 하면서 꼭 근육이 아플 때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박신혜는 그래도 “극 중 인하가 사회 초년생인 제 또래 친구들과 똑같이 회사(방송국)에 입사해 성장하는 게 인간 박신혜로서도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강조했다.

박신혜는 지난 2013년 방영된 SBS TV ‘상속자들’, tvN ‘이웃집 꽃미남’, 로맨틱 코미디 영화 ‘시라노 연애조작단’(2010), SBS TV ‘미남이시네요’(2009) 등을 통해 사랑스러운 매력을 마음껏 발산했다.

특히 ‘상속자들’ 차은상과 ‘미남이시네요’ 고미남은 박신혜에게 순진무구하면서도 씩씩한 캔디 이미지를 심어줬다. 박신혜는 작년 말 기자회견답에서 “최인하는 캔디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불 살 통통한 사랑스러운 아역 배우로만 남을까 내심 걱정했던 모양이다.

그에게 ‘피노키오’를 통해 달성한 목표가 무엇이었느냐고 묻

자 “‘캔디’ 이미지에서 많이 탈피한 것 같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예전에는 밝고 명랑하면서도 눈물이 많은 역이 많아서 캔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작품에 대해서는 ‘어라, 박신혜가 코믹 연기도 되네? 몸도 쉰네? 뽀로 느낌도 조금씩 나네?’ 이런 반응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수를 준비했던 박신혜는 지난 2003년 SBS TV ‘천국의 계단’ 아역 오디션에 탈락 합격하면서 연기자의 길에 접어들었다. “제 인생을 바꾼 작품은 ‘천국의 계단’이죠. 연기에 재미를 느끼도록 한 작품은 ‘미남이시네요’고요. 나이 차이 많은 선배 사이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연기하다가 ‘미남이시네요’를 통해 연기가 재미있다는 걸 느꼈어요.”

어느새 믿고 보는 배우가 된 박신혜는 “대본을 읽을 때 리듬감이 느껴지는 작품들을 고른다”고 설명했다. “극 전체가 템포가 있고 전개도 빠르면서 확 사람을 끌어당기는 대본들이 있어요. 대본을 처음 읽을 때 술술 넘어가면 옆에서 누가 말을 걸어도 대본만 보게 돼요. 그런데 첫 장을 읽을 때 뼈가득거리면 아무리 집중해서 읽으려고 노력해도 계속 뼈가 거려요.”

첫 전문직 연기를 무난하게 소화한 박신혜는 앞으로 “‘궁다타’ 같은 파듯한 드라마를 통해 의사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희망을 밝혔다.

“전도연·고두심 선배처럼 통련하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국민 배우까지는 어렵더라도 시청자, 관객들과 친구처럼 호흡하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중앙대 연극영화과에 재학 중인 박신혜는 벌써 마지막 학기만을 남겨두고 있다. 박신혜는 오는 9월 북학 전까지 여행을 가능한 한 많이 다니면서 재충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취미인 꽃꽂이 실력도 더 연마할 예정이라고.

“‘피노키오’ 촬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배우들끼리 모여서 다음 작품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연기자는 행복하지만 불안함도 늘 따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작품을 계속 욕심내게 되는 것 같아요.”

‘삼시세끼-어촌편’ 차승원·유해진만으로 ‘충분’

시청률 9.8%…케이블 동시간대 1위

첫방송을 앞두고 장근석의 갑작스러운 하차에도 불구하고 tvN ‘삼시세끼-어촌편’이 23일 첫회에서 9.8%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전편의 최고 시청률을 단숨에 뛰어넘는 ‘파란’이다. tvN은 전날 밤 9시45분 시작한 ‘삼시세끼-어촌편’ 첫회가 케이블, 위성, IPTV 통합시청률에서 가구 평균 9.8%, 순간 최고 11.9%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이서진과 옥택연이 출연한 ‘삼시세끼-농촌편’은 지난해 10월18일 4.6%로 출발해 최고 시청률 9.1%까지 오르며 10주 연속 동시간대 케이블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케이블TV 프로그램이 시청률 1~2%를 기준으로 인기를 평가하는 상황에서 ‘삼시세끼-농촌편’의 이같은 인기는 지상파를 무색하게 하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후속작인 어촌편은 첫회에서 바로 전편의 최고 시청률을 넘어 10%를 위협하면서 다시 케이블 프로그램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강원도 정선에서 촬영한 농촌편의 성공에 힘입어 후속으로 제작된 ‘삼시세끼-어촌편’은 차승원, 유해진, 장근석 등 세 명의 배우를 목표에서도 6시간이나 배를 타고 들어가야하는 외딴 섬 만재도로 보내 어촌에서의 자급자족 생존기를 조망하겠다는 계획으로 출발부터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첫녹화까지 마친 상태에서 첫방송을 앞두고 장근석이 탈세논란으로 하차하면서 16일로 예정됐던 방송이 한주 늦춰졌고, 그 시간 제작진은 장근석의 출연분을 편집했다.

세 배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방송에서 장근석 분량만을 들어내는 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뚜껑을 연 ‘삼시세끼-어촌편’ 첫회에서 장근석은 그림자도 없었다. 제작진은 편집의 묘를 기가막히게 발휘해 장근석의 목소리는 물론이고 그가 다른 배우들과 엮이는 모든 장면을 드러냈다.

같은 시간 방송된 MBC TV ‘피동갑내기 과외하기’가 2.9%로 집계되는 등 지상파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5% 미만으로 떨어지기도 하는 상황에서 엄청난 인기가 아닐 수 없다.



‘삼시세끼-어촌편’은 차승원이 여느 주부 못지않은 요리솜씨와 살림솜씨를 과시해, 전편에 출연한 이서진-옥택연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